대선 D-12 여야 대선캠프 정책사령탑에 듣는다

민주 이용섭 정책위의장

"진정성 담긴 119개 공약 꼭 실천할 것"

사람 먼저·공평 세상 바탕
심상정 요구사항도 담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추가
호남고속철 제주 연장 제외

18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선 공약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대선 판세가 피 말리는 팽팽한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막판 제시되는 대선 공약은 최종 승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일보는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책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대선 공약을 조명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대선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

-공약집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제본 단계에 돌입했으며 발표 시점만 보고 있다. 다음주에는 최종 대선 공약이 확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언제 공약집을 내는 지 그것만 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물론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전 후보와의 연대에 따라 그 쪽의 요구 사항도 함께 담았다.

▲어떤 공약을 담았는가.

-문 후보가 대선 화두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두 가지를 제시했다. 두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비전을 대선 공약에 담았다. 무엇보다도 실천 가능한 공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으며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크게 10가지로 대선 공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는 '만나바'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 민주화 △정치쇄신 △한반도 평화와 공존 △성폭력·마약 등 국민의 안전 △교육 개혁 △미래성장 동력 확충 위한 과학기술문화강국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등이다. 이를 토대로 119가지 약속(대선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하는 곳이 119인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119가지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공약은 중앙과 지방, 세대·지역·직능 등 세 가지를 고려해 공약을 만든다. 지난 달 발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목포~제주 간의 호남고속철도 연장은 일부 논란이 있어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추가된 공약으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지원 등이다. 광주·전남공약은 크게 15가지로 구분되지만, 광주시 도심재생사업, 장성심혈관센터 등 세부적으로 따지면 60개가 넘는다.

▲주목할 만한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모두 다 절실한 현안이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단계 사업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과 문화 기반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광주가 문화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남해안 관광·레저지구 지정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전남의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광주의 문화와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3농 혁신(농업·농민·농촌)' 공약과 수산양식사업 육성도 맞춤형 공약이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부분에 대한 공약은.

-광역경제권으로 가야 하지만 5+2는 아니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분리, 호남을 두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눌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에서 분리할 방침이다.

▲지방분권 및 재정에 대한 공약은.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지방에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 재정 문제는 현재의 국세 8, 지방세 2의 구조를 6대 4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확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도 강화될 것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급하니까 정체성을 위장하고 우리의 진보 공약을 따라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재벌 개혁 부분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게 보인다. 그러나 급조된 공약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우리와 비슷한 공약을 내놓으려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실현하거나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특히, 박 후보는 공약 제시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막지 못한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공약을 평가한다면.

-우선 진정성이 없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양극화를 극대화,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각시킨 공헌자가 MB와 박근혜 후보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선 목전에 당명 바꾸고 경제 민주화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진정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내용도 부실하다. 대표적인 예가 재벌 개혁이다. 김종인씨가 토사구팽 되는가 하면 출자총액제한제, 순환 출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공약 등을 보면 재벌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 박 후보 측에서 대선을 앞두고 각종 진보적 공약을 내걸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과의 차이점이다. 오리지널과 카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짝퉁과 진품은 다르다.

▲지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에 상관없이 역사를 바꾸려는 세력이 준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5년 내내 갈등과 반목이 거듭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진보의 시대 흐름에 걸 맞는 정부가 창출되야 한다. 순리대로 가야한다. 호남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요청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회도 누리사업예산 전액 삭감

시도의회 의장협 결의 따라 279억원 국가지원 요구

광주시의회에 이어 전남도의회도 만3~5세 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사업비 279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6일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5세 아동과 소득 하위 70%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3~5세 전체로 확대한다.

하지만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등에 전가하면서 반발을 사왔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최근 누리사업비 70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관위, 대선 투개표 참관인 수 확대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 첫선
전자칩 부착 바꿔치기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2명 이내에서 동행할 수 있게 했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이번 대선부터 후보자별로 1명씩의 투표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참관인들이 분류기 운영과정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최종 공표된 개표 상황표를 언론사와 개표참관인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개표소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종전의 종이 투표함을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전면 교체하고 투표함 덮개 안쪽에 고유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부착함으로써 스마트폰으로 정규 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표함 바꿔치기'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에 사용되는 1만9000여개 투표함에 전자칩을 부착하고, 직원 및 투·개표 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함 인증절차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석면처리 비용 50% 지원
이낙연의원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가루가 날려 폐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석면을 해체, 제거, 처리할 때 비용의 30%만 국고에서 지원받다 보니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국민 57% "힐러리 클린턴 차기 대권도전 지지"

ABC-WP 공동조사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는 201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 5일(현지시각)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는 클린턴 장관의 차기 대권 도전을 지지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율이 66%로 남성(49%)보 다 훨씬 높았으며,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지지율(82%)이 공화당원(23%)을 압도했다.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의 업무수행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8%가 긍정적(부정적 22%)이라고 밝혔으며, 인기도 조사에서도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6%(비호감 2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뉴욕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6~29일 클린턴 장관의 '지역구'인 뉴욕주 유권자 82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장관은 75%의 지지율을 기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62%)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55%) 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나대는 "이번 조사에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클린턴 장관의 대권 도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전,답,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납골묘,선산,농장,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화순,담양,나주,장성,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투자,경매,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원룸,상가,토지,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밤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가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장성 백양사입구 모텔 및 식당(성업중)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자동차검사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오치동 3층신축상가주택 매11억(융,보5억5천포함)월수6백만
*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전200P,창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홍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4억 월수 250만(안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읍,덕진리 대로변,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철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광주,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급매 상가/원룸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 (100p)
▶건축면적 : 737.19㎡ (223p)
▶매매가 6억 9천(융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원, 월세 794만원 융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율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병원부근
▶토지 89P 건물 233P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4억9천 융자 2억3천 5백 실투자액 2억5천5백

문 의 : 011-684-3886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